

너무 굴러먹던 떡밥에 질린 껌을 위해 쓰는 네루와 간디에 대해.

멘봉박사

나도 잘 아는건 아님. 강 너무 굴러먹던 떡밥에 질려하던 것 같아서, 어제 읽은 인도 100문 100답에서 대충 땡겨온 글을 써볼까함.

현대 인도의 개국공신을 쓰자면 가장 유명한 건 간디와 네루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간디가 돌린 물레와 감혀 있는 사진 뿐 간디가 정확히 인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네루는 어떤 사상으로 인도를 통치 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함.

우선 이 말을 꺼내기 전에 당시 인도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인도는 마치 힌두교 유럽과 같았음. 힌두교를 믿었던 적이 있던 봉건정, 과거 로마의 역사가 있었듯, 아소카 대왕의 지도 아래 하나가 된 적이 있었던 인도여서, 사회문화적 동질감은 기독교 형제와 로마문화에 대한 공통점을 갖은 유럽처럼, 힌두교를 믿었던 경험과 힌두 문화가 인도라는 통일성을 가지게 하며, 이슬람교의 침공으로 인해 유럽의 발칸반도처럼 이슬람 맛썬 섞은 느낌이었음. 당시 알바니아나, 코소보처럼. 그러던 중 영국이 야금야금 땅을 지배하더니 인도 아대륙을 150년만에 최초로 통일해버림.

그 당시 사회지식인이 그랬듯 18시간 아동노동과 하루에 15분 휴식 티한잔이 전부였던 영국 노동자를 보고, 식겁한 간디와 네루는 인도는 저탄식으로 만들면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함.

여기서 간디는 매우 혁신적 발상을 하게됨. "아! 자본주의가 문제였구나, 그럼 봉건정 사회로 돌아가면 되지 ㅎㅎ."라는 멋진 사상을 가지고, 비폭력저항운동을 시작함. 당연히 머리에 꽃이 활짝핀 사상이었지만, 많은 인도인은 감동해 버렸고 거의 현인신에 준하는 취급을 받게됨. 사실 이것보다는 힌두교에 기반한 포용 정신으로 모든 사회적 문제를 일단 포용해서 쉬쉬하는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함. (심지어 암살 당한 뒤, 힌두국단주의 암살범의 살해 이유도 2가지였는데 이슬람교랑 친한거랑 지 혼자만 진리를 알고있다는거였음)

반대로 어느정도 현실주의였던 네루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했고, 인도에 맞는 인도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생각함. 인도식 사회주의는 엘리트 관료들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였고 그래서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이 세속주의이며, 그로인해 인도는 정교분리가 초대 헌법에 광광 박혀있었음. (지금은 그 따님이 그 정교합일을 죽은자의 소생시켜버림.) 그래서,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고, 강력한 중공업 정책을 실시했으며, 기초과학과 기술개발에 힘쓰며, 교육에 많은 것을 투자함. 현재 인도가 IT에서 잘나가는 이유도 이런 이유임. 교육에 많은 걸 투자해서. 또 자신을 제 3세계라고 칭했으나 사실상 친소파 국가였고, 소련제 무기를 애용하며, 소련에게 소비재 지원과 과학기술 지원을 받는 등 특이하게 친소파루트를 탄 국가였음.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 인도는 프랑스라기 보단 유럽이었고, 각 국가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게 아니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해줘야 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통일된 민법을 가질 순 없었음. 형법은 통일될 수 있었으나 민법은 정말 동이나 구별로 다른 희귀한 사태를 보게 됨. 이러한 사태에서 산업화 초기에 필요한 농업 개혁의 길은 요원했고, 결국 네루 사후 미완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끝나게 됨. 참고로 이후 네루가 만든 강력한 정부는 힘을 쓰지 못해 폭발해 어마어마한 부패로 나타남.

현재 인도는 다양한 노조를 가지고 있으며, 복수가입도 가능함. 인도공산당 지역노조와 연계가 잘 되어있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음.

여기서 내가 생각할 만한 점은 과연 엘리트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가? 임. 이상 책 리뷰 우려먹기 었음.